

한국타이어제조(주)

복지재단 '93사업 마무리

한국타이어가 창사 50주년을 앞두고 이익금 중 30억원을 기본 재산으로 1990년 12월 10일자로 설립한 한국타이어 복지재단이 설립 3주년을 맞았다.

이제 사회복지계와 100여개의 기업재단 중에서 모범적인 복지재단으로 인정받는 위치에 서게 되었으며, 보다 효과적으로 불우한 소외계층의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93년도에는 6개분야(① 대외 장학금 지급사업 ② 의료복지 지원사업 ③ 사회복지시설 지원사업 ④ 소외계층 지원사업 ⑤ 재가노인 지원사업 ⑥ 특수학교 지원사업)의 8개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사업을 추진해 왔다.

긴급(추가)지원을 포함한 5억 5천만원 이상을 순수한 목적사업 비로 집행하여 계획대비 104.75%의 실적과 함께 누적사업비가 11억 3천 4백만원에 이르게 되었다.

사업실시 4년차를 맞는 '94년도에는 보다 성숙한 복지재단으로, 더 나은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계속 노력하고, 교통안전 캠페인의 운영과

프로그램의 분리 및 통합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제3회 경로잔치 열어

한국타이어 한마음회관 노인교실에서는 지난해 11월 17일 제3회 경로잔치가 열렸다.

이날 경로잔치는 한마음회관 주부회원들의 정성스런 준비로 조출하게 치러졌는데, 생일을 맞은 분들에 대한 연례행사로써가 아닌, 친부모님의 생일상을 올리는 며느리의 정성과 마음으로 음식도 장만하고 생일축가도 곁들였다.

'94 경영전략세미나 열려

'93년도를 마감하고 신년 경영설계를 위한 경영전략세미나가 지난해 12월 23일 본사 강당에서 열렸다.

홍건희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과 과장급 이상 약 250여명이 참석했던 이번 세미나는 홍익대 경영학과 이순철 박사의 '경영혁신을 위한 비즈니스 리엔지니어링' 강의를 시작으로, 서울대 경영학과 조동성 박사의 "'94년도 국내외 경제전망과 기업의 대응전략' 강의가 이어진 후 조충환 부사장의 '우리사 경영전략' 발표, 사장 특강을 끝으로 세미나를 마쳤다.

자위소방대, 소방훈련 실시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은 지난해 12월 15일 사내 자위소방대의 가상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날 소방훈련은 '93 월동기 소방안전 100일 대책에 의거, 화재 다발기를 맞아 자위소방대의 소방활동을 배양하고 화재발생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훈련이었다.

대전소방서와 합동으로 진행된 이번 훈련은 가상점화를 통한 실제상황으로 자위소방대의 소화통보, 피난 등의 훈련으로 화재경보전파 및 119신고요령과 인명구조 및 대피훈련, 자체소방시설 활용 및 진화훈련에 역점을 두고 실시했다.

**국립중앙과학관에
타이어 전시를 기증**

한국타이어 중앙연구소는 대덕연구단지에 위치한 국립중앙과학관 종합상설전시장의 운송수단코너에 타이어와 휠의 단면본을 기증하였다.

한국타이어가 기증한 타이어와 휠 전시물은 과학관을 찾는 관람자들에게 그것에 대한 이해를 높임은 물론 자체 홍보에도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주) 우성산업

공홍태 전임 노조위원장
산업평화상 수상

틈틈이 갈고 닦아온 실력을 발휘했다.

양산공장 장애인 생산직직원
신규채용

(주)우성산업 양산공장에서는 지난해 12월 1일자로 '94년도 농아학교 졸업예정인 장애인(농아자) 6명을 생산직직원으로 신규채용하였다.

1992년에 이어 1993년에도 장애인들을 생산직직원으로 채용한 (주)우성산업에서는 전 임직원들의 깊은 관심과 따뜻한 배려 속에서 장애인들도 정상인들과 다름없는 생활을 할 수 있다는 본보기를 보여줌으로써 많은 장애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갖게 해주고 있다.

한편 장애인직원들의 부모들에게도 그들의 자녀들이 일하고 있는 공장을 견학토록 하여 밝고 명랑한 표정으로 맡은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현장을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 자녀들을 두고 있는 부모들의 아픈 마음을 위로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주)우성산업 공홍태 전임 노조위원장(현 고무연맹 부산지역 조직국장)은 평소 산업평화 정착과 건전한 노사관계 정립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11월 16일 부산직할시가 제정한 「제1회 산업평화상」 시상식에서 산업평화상 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한편 (주)우성산업 김동철 사장은 공홍태 전임 노조위원장을 접견하고 그동안 건전한 노사관계를 정립하기 위하여 노력해온 그의 노고를 치하하고 '앞으로도 건전한 노사관계 정립과 산업평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제1회 우성인 테니스대회 개최

(주)우성산업 테니스회에서는 지난해 11월 20일 양산공장 사내 테니스코트에서 회원 상호간의 스포츠를 통한 친목을 다지는 한편 그동안 쌓아온 실력을 겨루는 「제1회 우성인 테니스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테니스회 회원들은 물론 다수의 동호인들이 참석하여 시종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경기를 관전하며 화기에애한 가운데 스포츠를 통한 친목을 다졌다.

사내 바둑대회 개최

'94 대리승진 자격시험 실시

(주)우성산업은 지난해 12월 4일 양산 본사 교육장에서 대리승진후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94년도 대리승진 자격시험을 실시하였다.

이날 대리승진 자격시험에는 여사원 2명을 포함하여 모두 40여명의 후보자들이 응시하였는데, 이들은 필승합격의 결의로 그동안

(주)우성산업은 지난해 11월 17일 양산본사에서 양산공장과 부산공장 소속 바둑 동호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내 바둑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사내 바둑대회에는 최근 일고 있는 바둑 열기를 반영이라도 하듯 내노라 하는 숨은 실력자들이 참가하여 평소에 만나해온 바둑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관전자들을 즐겁게 했다.

(주) 금 호

은 유럽지역에서의 판매 급신장 시현과 향후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판매망을 확보하는 등 대유럽 U\$ 1억 시장 구축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해 내어 이날 시상식에서 산업포장을 수상하였다.

우리 제품영국의 TARMAC RACING에서 우승

‘5억불 수출의 탑’ 수상

우리회사는 지난해 11월 30일 김영삼 대통령 및 무역업체, 유관기관, 관련단체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종합전시장에서 거행된 제30회 무역의 날 행사에서 ‘수출 5억불 탑’을 수상하였다.

수출실적과 수출신장률, 외화가득률, 국민경제기여도 등 수출의 질적요소에 중점을 두어 포상한 이날 시상식에서 우리회사는 U\$ 5억 1천만의 수출실적과 세계 타이어시장 10위의 매출실적을 기록하며 기술 한국의 이미지를 제고한 데 대한 공적이 높어 평가되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중저가 시장 점유라는 한국 제품 이미지에서 탈피하여 HIGH PERFORMANCE TIRE 매출에 역점을 두어 세계시장에서의 제품 이미지 향상에도 크게 기여한 바가 인정되었다.

그리고 유럽법인장 김진민 부장

우리회사가 금호가 자체개발한 RACING TIRE인 185/60HR14 SLICK TIRE를 취부한 차량이 영국의 NATIONAL EVENT인 ‘CLUBMAN TARMAC RALLY’에 2회 출전하여 1위와 2위를 차지하여 우리의 기술력을 과시하였다. 영국의 F.A.S.T.사에서는 현장에서 우리회사 타이어의 수입을 요청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12일 용인 자연농원에서 개최된 RACING TRACK 시범경기에서도 우리회사의 205/50K15 SLICK TIRE를 취부한 차량이 우승하여 관계자들의 깊은 관심속에 호평을 받았다.

품질명장 3명, 품질기술분임조

대통령상 수상

지난해 11월 18일 세종문화회

관에서 거행된 제19회 품질경영대회에서 우리회사는 윤생진, 공인택, 강영채 품질명장과 전진 A분임조, Q.C.장 운영위원회, 하나스틸 F분임조, 새아침 분임조가 대통령 금상과 은상을 수상하였다.

박성용 그룹회장은 수상기념 오찬 자리에서 ‘어려운 근무여건속에서도 투철한 애사심과 장인정신을 발휘하여 회사의 그룹이미지를 드높인 노고를 치하하고, 앞으로도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여 모든 임직원의 귀감이 되어줄 것’을 당부하였다.

각 사업장 여직원회, 불우

이웃돕기 일일차집 열어

어느때보다도 힘겨웠던 한해를 마감하며 각 사업장의 여사원회는 금호가족의 사랑을 모아 불우이웃을 돕고자 일일차집을 마련하였다.

‘수렴회(본사)’에서는 지난해 12월 16일 7층 중회의실에서 일일차집을 열고 각종 기념품과 다과를 준비해, 우리회사 및 그룹사 임직원들에게 직장생활의 여유와 불우이웃에게 사랑을 나눌 기회를 제공했다. 이날 수익금 전액은 ‘화성영아원’과 무의탁 노인 2분을 돕는 데 사용되었다.